

光州日報



광주신도시의 중심특구로
누리는 3·8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민권 고시비 최고 인자
수원신도시 광주광역시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29일 (음력 12월 22일) 화요일

“떠나는 대통령에 서명 강요 말라”

노대통령, 정부조직법안 거부권 천명

“참여정부 가치·철학 훼손 동참 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의 의미를 거론한 노 대통령은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대(大)부처 주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노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국회에 맡겨둘 일이다 대통령이 외 미리 나서느냐고 판斷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준비부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지적, 여당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

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부을 것 이어서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거부권 시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한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해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라며 아직 혁신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말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아박한 일”이라며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문화수도 지키기’

조성위 사수 등 결의 … 박광태 광주시장도 “강력 대응”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해양수산부, 농업 진흥청 지지기에 적극 나섰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와 이낙연·김태홍·유선호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4시 신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직후 김 원내대표는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를 막고, 통일부와 농진청을 살리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등 민주신당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8일 “민주신당이 조성위 존속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조성위와 추진단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또 농민들의 피해를 막고 광양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청과 해수부 폐지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설맞이 특산품 판촉전
28일 오전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설맞이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촉전에서 도청 직원들이 쌀을 표고버섯, 어수 멸치 등 특산품을 고르고 있다. 32개 정보화마을에서 62개 상품이 출품된 판촉전은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계속된다.

/취재기자 jrwi@kwangju.co.kr

무안·영광·신안 어민

생계자금 168억 설 이전에 지급

타르 피해로 인해 지난 18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영광·신안 등 전남 3개 피해 지역 어민에 대해 168억원의 긴급 생계지원자금이 설 이전에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남·충남지역 피해 어민을 위해 긴급 생계비 468억원(충남 300억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차출하기로 의결했다.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지원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설 이전까지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피해 어민들의 입금 계좌 파악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따라서 피해 어민들은 설 이전에 가구당 평균 2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마을어장과 양식장, 맨손어업, 김가공공장, 횟집 등 무안을 비롯한 3개 지역 총 8천400 가구에 지급된다.

한편 무안·영광·신안 등 3개 지역에서 타르 피해를 입은 김양식어장 1만8천229㎡(1㏊은 1.8×40m)의 김발과 엽체에 대한 철거 및 폐기 작업이 29일부터 시작된다.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이 지정한 피해조사 전문기관 한국해사감정과 보험사 관계자, 3개 피해 시·군 담당자, 수협 관계자, 어민 대표 등 20여 명은 28일 전남도청 회의실에 모여 ‘보험사측 김 피해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철거작업에 합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 정부 총리 한승수 지명

이명박 당선인 “통상·자원 외교 적격자”

생각했다”면서 “또 과거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매우 화합적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각을 잘 화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일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화합하면서 협력,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일하는데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지명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장관, 외교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유엔총회 의장 등 종부한 국정·외교경험을 갖춘데다 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한 지명자는 영국 요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국 요크대, 케임브리지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20년 가까이 재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에 이어 이르면 20일 대통령직장을 발표한 뒤 금주중 청와대 수석 명단도 공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편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에 이어 이르면 20일 대통령직장을 발표한 뒤 금주중 청와대 수석 명단도 공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

제179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주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3기 1-6 광장빌딩 5층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9일